

“기적을 불러온 큰 믿음 - 중풍병자와 네 친구”

마가복음 2:1-5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의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 집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친구들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내려 보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시고, 그 중풍병자가 지니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이 중풍병자와 네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내 집의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붕 수리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결단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들이 있을까요?

첫째, 시간의 희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예배 드릴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전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물질의 희생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의 희생은 그의 마음에 대한 희생과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고 했습니다. 물질과 신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때, 물질에서도 자유하게 놓이게 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주위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주변에 그 믿음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그것 역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세워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 머리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네 친구는 과연 누구입니까?

목장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두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3. 이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들것에 실려 도착했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막 2:5)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진정 살아 있는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 혼자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믿음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는대로 말하고, 믿는대로 행동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 믿음, 보여지고 드러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비슷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텐데도, 예수님을 만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를 포함해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모두에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와 문젯거리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인생의 막장, 즉 막다른 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도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취미처럼 믿음을 생활을 하지만, 프로는 자기의 신앙과 사명에 자신의 생애를 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마추어입니까? 아니면 프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을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또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행동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적을 불러오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곰곰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에 따르는 시간적, 물질적, 재능적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중풍병자라면, 나를 들것에 들고 기꺼이 지분을 뚫어 예수님께 데리고 갈,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있는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지분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믿음을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을 언제나 보여지고 증명되어 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보이라!" 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네,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